

전남도,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속도

부품 제조·단지 배치 계획 등 연구 용역결과 11월 발표 추가 산단 개발도 검토 중

전남도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품별 산업단지 배치, 연관기업 유치, 전문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글로벌 수준의 공급망을 갖춘 산업 생태계의 종합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해 지난 3월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용역결과는 오는 11월 나올 전망이다.

다. 세부 내용은 ▲해상풍력 부품 제조·조립 단지 현황조사 및 배치계획 ▲도내 해상풍력 연관기업 발굴·육성계획 및 국내외 기업 유치 방안 ▲해상풍력 국산 기자재 개발 연구개발(R&D) 과제 및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지금까지 중간보고회와 2차례의 점검 보고회를 했다. 그동안 해상풍력 부품 제조·조립단지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해외사례 조사와 함께 산단 소재 지자체, 입주기업과 수차례 면담하고, 도내 산단별 현황과 장·단점을 분석해 배치계획을 마련했다. 부족한 가용부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산단 개발도 검토 중이다. 특히 전남도는 터빈, 블레이드, 타워 등 대형 해

상풍력 기자재 제조·조립을 위한 가용부지 확보와 해상풍력산업 집적화를 위해 정부에 목표산량 배후단지를 '해상풍력 특화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최근 목표산량 지원부지 및 2단계 배후단지가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해상풍력 부지로 반영돼 예타 조사 등을 거쳐 2026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신속한 입주를 바라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이미 조성한 1단계 배후단지의 '해상풍력 특화구역' 지정이 시급하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남은 3개월의 용역 기간 부품별 산업단지 배치, 연관기업 발굴·육성, R&D, 인력 양성 등 부문별로 최적의 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신남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8.2GW 해상풍력사업을 토대로 전남 서남권에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 진출 교두보로 육성할 것"이라며 "전남을 넘어 국가 차원의 산업생태계 허브를 조성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최적의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30년까지 민간자금 등 48조 5천억 원을 들여 신안 해상에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450개 기업 유치·육성과 12만여 일자리 창출 등 전남의 확실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형 평생주택 설계 공모 '비콘 플랫폼' 당선작 선정



광주형 평생주택 설계공모 당선작-조감도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광주형 평생 주택'의 설계 공모 당선작이 확정됐다. 광주 중심지인 상무지구에 조성되는 데다, 전국 최초로 중형 평형(전용 85㎡ 이하)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의 관심이 높다고 있다.

12일 광주시와 광주 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구 치평동 옛 상무 조각장 동쪽 내대지에서 추진하는 광주형 평생 주택 시범사업의 현상 설계 공모에서 '비콘 플랫폼(Beacon Platform)'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해마 종합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사무소 창, 건축사사무소 휴먼플레이 공동 응모한 비콘 플랫폼(Beacon Platform-빛고을 복합주거플랫폼)은 광주의 새로운 희망이 될 평생주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빛고을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복합 주거공간을 담고 있다.

당선작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전형에서 벗어난 변화감 있는 입면과 배치, 그리드 모듈에 의한 다양한 평면 및 단위세대 계획, 사업지 바로 옆 옛 상무조각장에 조성중인 대표 도서관·북한문화공간과의 연계, 공원 및 보행자 전용도로와 연결하는 개방된 외부공간을 구성한 점 등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당선작에는 용역비 23억4100만원 상당의 기본·실시설계 우선 협상권이 주어진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지사, 롯데케미칼에 광양만권 신산업 투자 요청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대기업 대표를 직접 찾아가 논의하는 등 전남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영준 롯데케미칼 대표와 면담하고 전남 광양만권에 대한 신산업 투자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면담은 전남에 청년을 돌아오게 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선 첨단·대규모 기업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김 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롯데케미칼은 여수 국가산단 등 5개 공장과 해외 26개 생산기지를 두고 연매출 12조원 이상의 실적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 국내 대표 석유화학 기업이다. 최근 'ESG 경영 및 VISON 2030 선포'를 통해 친환경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 다각화 등 신사업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김 지사는 "롯데케미칼이 여수공장 운영 등으로 그동안 지역 발전에 기여해 감사하다"며 "대규모 고용 창출이 가능한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문에 대한 광양만권 조기 투자"를 요청했다. 또 "최근 롯데케미칼이 '친환경수소성장로드맵'에서 제시한 미래 수소 분야 신사업의 출발지로, 부생수소 생산량이 국내 최대인 여수산단을 적극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전남에서의 사업을 통해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남 2050 탄소중립' 달성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광양만권은 여수국가산단, 광양항, 포스코광양 제철, 포스코케미칼 등이 입지해 있어 이차전지 및 수소 분야 전주기 산업클러스터 구축 최적지로 꼽힌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회적 기업 현장 방문 이영선 광주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광산구 평동산단에 위치한 사회적경제 기업 (주)멘퍼스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 농업분야 역대 최대 1조233억 국비 확정

6.5% ↑...미래 먹거리사업 탄력 김치생산단지 조성 등 6건 반영

전남도가 2022년 농업 분야 정부 예산안에 올해보다 620억원(6.5%) 늘어나 역대 최대인 1조233억 원을 반영해 미래 먹거리 농생명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신규사업으로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농촌 일자리 속도 건립,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 실증연구서비스 지원 등 전남도가 건의한 주요 핵심사업 6건이 모두 반영됐다.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겨울배추 주산지 및 절임배추 최대 생산지인 전남의 김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초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중국산 '알몸 절임' 파문 등 수입입지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촉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480억원이 지원된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1차년도 사업비로 4억원의 설계비가 반영됐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업 생산성 유지를 위해 필수자원이 된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2023년까지 168억원이 투입될 농촌 일자리 속도 건립에 42억원이 반영되면서 농촌인력 수요가 많은 전남의 일손 부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이 첨단 미래농업 선도를 목표로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투입할 주민참여형 임대형 팜 지원사업 40억원, 창업보육 실증연구 서비스 지원 6억원이 포함됐다. 청년에게 영농·창업 기회를 주고, 기업에 전문 실증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팜 확산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시설 개선사업 2억5000만원, 농촌 우수 이용체계 개편사업 3억원 등도 반영됐다.

계속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 50억 원, 영산강 III·IV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553억원 등 158개 사업 5400여억원이 편성됐다. 농업 생산력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각종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1조233억원에 달한 2022년 농업 분야 국고예산이 농업인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국회 건의를 통해 예산 추액과 함께 추가사업이 반영되도록 국고확보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추석 제수용품·수산물 전남도, 원산지 특별 단속

전남도가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및 수산물 선물 세트를 중심으로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보름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와 시군은 물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거짓표시, 미표시, 위장·혼동표시를 단속한다.

추석을 앞두고 조기,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돼 ▲명절 제수용 및 수산물 선물세트와 ▲홍어, 참돔, 가리비 등 일본산 수산물 ▲오징어, 낙지 등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내살이 행복한 광주

광산구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한다점빵
OPEN

NAVER에
한다점빵

9월 한 달간 무료배송

다양한 할인혜택

SNS 구매 후기 이벤트